

중국 외자은행의 인민폐 영업 확대 현황

1. 개요

□ 외자은행¹⁾은 최근 은행간시장(interbank market), 외환선물거래시장, 채권시장 등을 통해 대량의 인민폐를 매입하고 있음.

- 이들에게 인민폐를 공급하는 자금공급원은 5대 국유은행을 비롯한 중국계 은행들임.
- 외자은행들이 대규모의 인민폐 자금을 매입하는 주된 원인은 증가하는 대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.
- 대량의 인민폐 자금을 바탕으로 외자은행들은 중자은행의 주 영업영역인 인민폐 대출업무 진출을 확대하고 있음.

□ 중자은행은 취약한 이윤획득구조로 인해 금융시장에서 외자은행의 대리자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.

- 중자은행은 자신들이 확보한 민간저축예금 상당부분을 외자은행에 대출하고 이자율 차

1)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말 중국에 진출한 외자은행의 영업기관은 254개로 그 중 154개 외자은행이 25개 도시에서 위안화업무 취급을 승인받았음. 또한 외자은행의 자산총액은 876.57억 달러로 전체 은행업 자산총액의 1.89%를 차지함.(자료: 중국인민은행 www.pbc.gov.cn)

이를 이윤으로 획득하고 있음.

- 외환시장에서도 대부분 외자은행이 제공한 고정수익상품 판매를 위주로 하고 있음.
- 독자적인 리스크 관리에 기초하여 취약한 이윤획득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이루지 않는다면 중자은행은 향후의 중국 금융시장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임.

2. 외자은행의 인민폐 매입 현황 및 원인

가. 현황

- 상당수의 외자은행들은 인민폐 자금 부족분을 단기의 은행간시장을 통해 조달하고 이를 대출에 사용하고 있음.
 - 현재 3년만기 대출이자율은 6.30%인데 만일 이자율이 낮은 은행간시장을 통해 장기적으로 인민폐 자금을 매입할 수 있다면 외자은행들은 이 중간에서 상당한 이차차익을 누릴 수 있음.
 - 최근 외자은행이 은행간시장을 통해 중자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인민폐 규모는 크게 늘어나고 있음.
- 외자은행들은 외환시장에서도 인민폐 자금을 활발히 매입하고 있음.
 - 2006년 1~5월 외환선물거래량은 57.19억 달러, 외환스왑거래량은 11.24억 달러에 달함.
 - 외환선물시장의 거래량 상위 10대 기관을 보면 4개의 외자금융기관이 포함됨.
 - 미국의 JP Morgan 상해지점이 거래량 1위를 차지하였고, Citibank 상해지점이 중국은행에

2) 30일 단기자금의 경우 2006년 9월 평균이자율은 2.66%였음.(자료: 중국인민은행)

이어 3위를 차지

- 스왑거래에서도 상위 10개 기관 중 6개의 외자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JP Morgan 상해지점의 거래량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고, 중자은행 중에서는 중국은행, 교통은행, 건설은행, 농업은행이 포함되어 있음.

□ 외자은행의 채권환매를 통한 인민폐 조달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.

- 채권환매는 기존의 채권을 베이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데 2006년 9월 환매채권 이자율은 2.14%로 은행간시장의 이자율보다 낮았음.
- 환매방식은 저당물이 있어 신용위험이 낮기 때문에 외자은행들이 최근 큰 폭으로 채권 환매를 진행하고 있음.
- 2006년 1~9월 HSBC의 채권거래량은 655건(약 3,400만 위안 규모)으로 상위 10대 채권거래기관에 위치하고 있음.

나. 외자은행의 자금 매입 원인

- 외자은행이 유치한 예금이 대출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은행간시장 등을 통해 인민폐자금을 조달하고 있음.
- 2005년 말까지 외자은행의 자산 중에서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1.5%인 반면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5.4%
- 중국내 지점망이 많지 않은 외자은행들의 인민폐예금 유치능력은 상당히 제한적임. 따라서 은행간시장을 통하거나 외환시장에서의 선물거래 또는 채권환매방식을 통해 인민폐를 대량으로 조달하고 있는 것임.

□ 대출/예금비율의 조정

- 중국의 은행산업은 WTO 가입에 따라 금년 12월 11일 외자에 대해 전면 개방될 예정임. 이에 따라 외자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조례 역시 중자은행의 관리감독 체계를 따르게 되어 별도 법인을 설립할 경우, 대출/예금비율을 75%로 유지하여야 함.
- 그러나 현재 HSBC, Citibank와 같은 대형은행들의 최근 대출/예금비율은 대략 200% 정도를 보임.
- 따라서 더욱 많은 인민폐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외자은행들의 급선무가 되고 있음.

3. 외자은행의 대출시장 진출 확대

□ 외자은행의 최대 자금제공자는 중자은행임.

- 1년만기 예금이자율은 2.52%임에도 불구하고 중자은행은 방대한 지점망을 이용해 15조 위안에 가까운 인민폐 민간저축예금의 대부분을 흡수
- 이러한 자금의 상당부분이 외자은행에게 대부되었고 중자은행은 이를 통해 단지 예금이자율과 은행간시장의 이자율 차액만을 이윤으로 획득함.

<표 1> 인민폐 예금·대출 기준이자율(2006년 8월 19일 조정)

인민폐 예금 기준이자율		인민폐 대출 기준이자율	
만 기	이 자 율	만 기	이 자 율
1년	2.52%	1~3년	6.30%
2년	3.06%	3~5년	6.48%
3년	3.69%	5년 이상	6.84%
은행간시장(30일)	2.66%(2006년 9월)		

자료) 중국 인민은행 홈페이지(www.pbc.gov.cn).

□ 외자은행은 중자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대량의 인민폐 자금을 활용하여 대출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음.

- 중자은행 중 극소수의 선도은행만이 신디케이트론을 할 수 있고 대부분 소매금융만을 하고 있음.

- 그러나 외자은행은 외환수요를 가진 많은 대기업에게 대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음.

- 2006년 3월 련상(联想)그룹은 ABN AMRO Bank, BNP Paribas Bank, Citibank, HSBC 및 Standard Chartered Bank가 주도한 4억 달러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획득한 바 있음.

- 2005년 12월 쩌화강지(振华港机)는 Citibank와 HSBC 두 은행이 공동 주관한 2억 달러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제공받음.

□ 인민폐 신디케이트론 시장에서도 중자은행은 이미 우위를 가지고 있지 못함.

- 2005년 초 상강컨테이너(上港集箱)는 18개 외자은행으로 구성된 신디케이트론 10억 위안을 받음.

- 중국은행 상해지점의 한 고위인사는 “Citibank, HSBC는 기업금융에서 이미 우리의 강력한 상대이다. 그들은 민영기업을 상대로 한 업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 규모가 큰 국유기업을 상대로 우리와 경쟁중이다”라고 밝힘.

□ 외환시장에서도 중자은행들은 대리인의 역할에 그치고 있음.

- 몇 개의 옵션과 스왑으로 구성되어 있는 외환금융상품은 외자은행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수익률은 6.0%에 달함.

- 통계에 따르면 외환금융시장의 규모는 800억 달러 정도로 시장점유율로 보면 중자은행이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자은행은 대부분 외자은행으로부터 구입한 고정 수익상품을 판매하고 있음.
- Societe Generale Bank 상하이지점의 중국자금담당 쉬웨이민(许伟民)은 “파생금융상품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소매금융을 하지 않고 도매금융에 특화시켜 중자금융기관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”라고 밝힘.
- 외자은행은 중자은행에 비해 높은 신용등급, 거대한 자금력, 풍부한 인재, 성숙된 금융기법 등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차익거래(arbitrage)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크게 하고 있음.

4. 중자은행의 문제점

- 중자은행은 엄격한 관리감독 및 통제하에 있어 신용대출 확대는 매우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예금·대출 차액은 부단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. 즉, 예금이 넘쳐나고 있음.
- 2005년 말 중국 은행업 예금·대출 차액은 이미 9조 2,000억 위안에 달했으며, 2006년 1~9월 신용대출 증가액은 2조 7,600억 위안으로 이미 중앙은행의 목표액 2조 6,000억 위안을 초과함.
- 전문가들은 새로 증가한 대출 중 대량의 신용대출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관리감독기관이 각종 수단을 통해 신용대출 확대를 억제하고자 한다는 것임.
- 금년 3월 IMF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국유은행의 대출증가는 주로 예금증가에 기인한 것이었으며, 중자은행이 구조조정과 금융개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경영활동은 여전히 상업 지향적이지 못하다고 지적.

- 중자은행의 많은 인재들이 업무실적과 연계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외자은행으로 이직을 하고 있음.

□ 중자은행은 최근까지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음. 그러나 각종 연구보고 결과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중자은행에 투자하는 주 요인은 정부의 은행에 대한 예대마진의 보호에 있다는 분석임.

- 따라서 이러한 보호조치가 지속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적극적인 영업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자은행은 향후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.

<참고 자료>

《经济观察报》, “中资银行会成为外资行‘代工者’吗”, 2006.10.23

中国人民银行 (<http://www.pbc.gov.cn>)